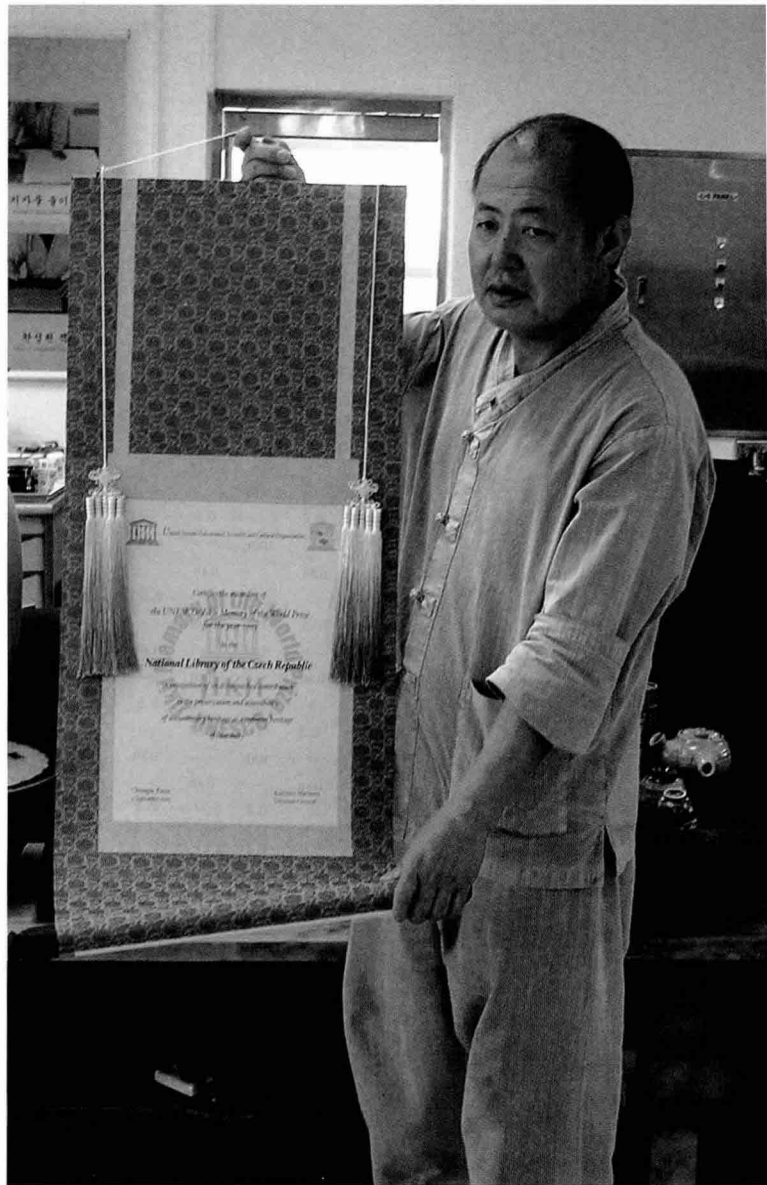


# 사라져가는 문화재 복원 외길

## “‘직지’ 상장제작 평생 기억될 것”

2005년 7월, 청주시는 비상이 걸렸다. 두달 앞으로 다가온 제1회 직지상 시상식에서 수여될 상장 제작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 청주시는 이미 유네스코에 제1회 직지상을 우리나라 전통한지를 이용해 두루마리 형태로 제작하겠다고 전달해 놓은 상태였기에 일반 양지로 제작할 수도 없는 처지였다. 충북 괴산의 모 한지 제조업체에 상장에 사용할 한지를 제작토록 하고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디자인까지는 마쳤으나 인쇄가 문제였던 것. 현대인쇄기로는 한지가 말리고 색감이 떨어져 상장으로 내놓을 수가 없었다.

이때 구원투수(?)로 등장한 사람이 바로 충청북도 무형문화재 제7호 배첩장이며 배첩전수관장인 홍종진 선생이었다. 홍 선생은 직지상장 제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을 듣고 자문에 응했다. 그의 판단은 이랬다. “전통한지는 표면을 다듬이질하여 단단하게 하고 섬유질이 넓게 퍼지게 하여 보풀이 없어야 된다(전문용어로 도침이라 함)”





안동 칠장사 괘불탱(국보 296호) 보수장면

이에 따라 청주시는 한지업체와 협의하여 홍종진 선생이 도침한 한지를 인쇄업체에 전달한 후 양지 인쇄보다 선명한 한지 상장을 인쇄하여 무사히 시상식을 마쳤다. 비단 배첩을 한 후 무게 중심을 잡는 나무봉을 넣어 교지형으로 제작된 이 상장은 유네스코로부터 극찬을 받기도 했다. 배첩장 홍종진 선생의 아이디어와 전통문화재 보존기술이 없었더라면 오늘의 직지상장은 존재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당시 행사를 진행했던 실무자들은 입을 모은다.

### 16세 때 배첩과 인연

“전통문화재와 사라져가는 고서를 원형으로 복원하고 보수하는 일에 보람을 느끼고 있지만 제1회 직지상 시상식에 사용된 직지상장이 제 손을 거쳐 만들어졌던 일을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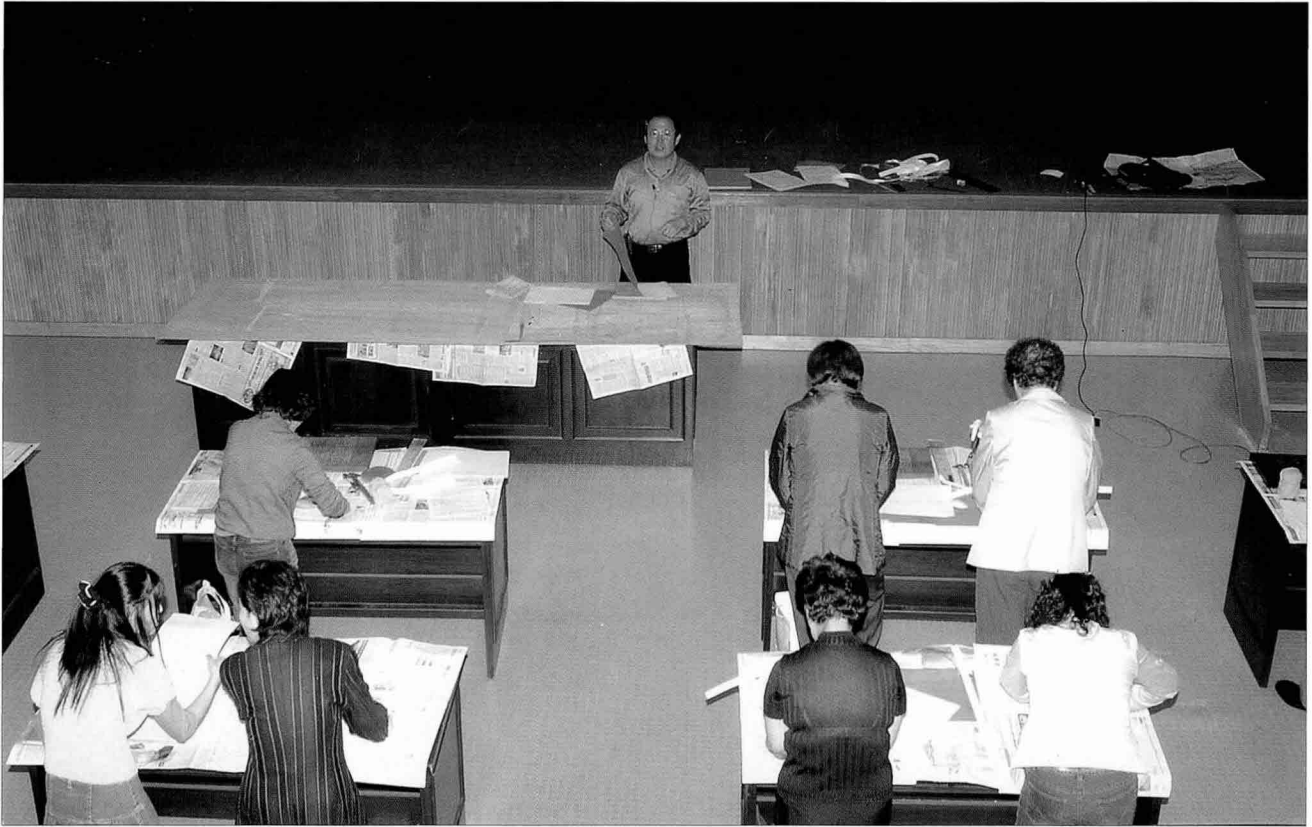
충청북도 무형문화재 제7호 배첩장인 홍종진 선생(57세). 그는 16세에 배첩과 인연을 맺었다. 천안이 고향이지만 우연한 기회에 청주에 있는 표구사에 들어가면서 그의 외길

배첩인생이 시작되었다.

“사실 배첩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어린 나이에 먹고 살길을 찾다가 표구점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주인은 윤병세 선생님이었는데 나중에 안 일이지만 표구에 관한 탁월한 기술을 가지신 분이었어요. 혹독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눈물도 많이 흘리고”

그때 홍 선생은 풀을 이용해 서화나 수예품 뒷면에 한지를 붙이는 배첩일부터 제책이나 병풍, 액자 제작을 위한 목공에 이르기까지 배첩과 장정에 관한 기술을 대부분 익혔다고 한다.

그는 윤병세 선생의 사사 10년만인 1975년 청주에서 동신당표구사를 차린다. 표구사라면 대개 그림을 표구하는 것이 주된 일이지만 홍 선생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표구와 장정(고서 복원이나 보수)은 일맥상통한다는 사실에 고서를 한장한장 보수하는 기술을 배우고 터득해 나갔다. 그런 그의 노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했다. 여기에 국가중요무형문화재 배첩장인 김표영선생으로 부터의 3년간 사사는 그를 우리나라 최고의 배첩장인으로 거듭나게 하는 계기가



▲ 고인쇄박물관 직지문화학교에서 강의하는 장면  
▶ 배첩 무료강습회를 마치고



되었다.

그런 집념에 충청북도는 1999년 도 무형문화재(배첩장) 제7호로 지정하기에 이른다. 이어 2004년 청주시는 흥덕구 봉명2동 2419번지에 연건평 150평 규모의 배첩전수관을 지어 홍 선생으로 하여금 배첩을 전수토록 하고 있다.

### 700여 문화재 복원·보수

배첩기술 가운데 하이라이트는 훼손된 고서나 고화를 복

원하는 작업. 정신을 집중하고 하나하나에 정성이 들어가야 하는 이 작업은 그야말로 임산부의 산고와 같다. 갈기 갈기 찢기고 색이 바란 작품들이 원형 그대로 되살아났을 때 그동안의 힘든 과정은 눈 녹듯이 사라진다. 홍 선생은 지금까지 괘불이나 탕화, 고서 등 700 여점의 문화재를 보수 또는 복원했다. 가장 기억에 남는 문화재는 충북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보물 '언해본' 이라고 한다. 조선초 작품인 언해본이 그의 손에 이르렀을 때는 손도 대기 어려울 정도였으나 지금은 어엿한 책 한권으로 거듭나 있다.



청주배첩전수관 개관식 모습



독일 구텐베르크 박물관장(왼쪽3번째)과 함께

“문화재를 복원할 땐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신을 집중합니다. 다 끝나면 문화재의 생명을 연장했다는 생각에 뿌듯합니다” 그리고 한동안 어떤 일도 손에 잡지 못하지요.

고 한다. 생활비 걱정 말고 자긍심을 갖고 살도록, 그리고 문화재를 복원한다는 자부심을 자식들에게 물려주자는 부인의 내조에 힘을 얻어 이 일에 정진할 수 있었다고 한다.

### 풀 · 재료 · 기술 어우러져야

수백 년이 지나도 끄떡없는 배첩과 장정이 나오기 위해서는 좋은 풀과 재료, 기술이 중요하다고. 그 중에서도 으뜸은 풀이라고 한다. 그는 10년 이상 삭힌 풀 만을 쓰는데 그래야 접착력이 강하고 작품 훼손이 덜하며 쭈미 먹지 않는 단다. 또 그런 풀이라야 수백 년 후에도 따듯한 물로 적시면 바로 분리돼 보수가 쉽다고 한다. 그래서 그는 고향인 천안에 풀을 삭히는 독수십 개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질 좋은 전통한지를 골라 쓰는 일도 작품 보존성을 높이는데 중요하단다.

각종 행사와 모임에 참석, 배첩 기술을 전수하고 강의를 하는 홍 선생은 문화재를 보호하고 전승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배첩기술이 일반에 널리 알려지지 않고 그저 표구사 정도라면 인식되어 아쉽다고 말한다.

그래서 이 기술을 익히려는 사람도 많지 않다고. 사실 수입이 많지 않기 때문에 주변사람들에게 권하지도 못한다는 홍 선생은 문화재가 중요하다면 그것을 유지하고 보수하고 복원하는 일이 뒷받침되어야하는 만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홍보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홍 선생도 한때 이 일을 접으려 했다고 한다. 수입이 적어 생활이 안되었기 때문. 이때 그를 지켜준 건 바로 부인이라

### 후계자 양성하는 게 꿈

“표구나 배첩, 정정 등을 입에 올리면 돈 안되는 직업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사실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기술이 맥이 끊기면 문화재의 보존이나 미술 작품 등의 가치를 높이는 일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으로는 사찰과 도서관 등에 보관되어 있는 고서나 탕화 등의 보수 복원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렇다면 배첩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대접받는 시절이 오지 않겠습니까. 정부에서도 이 기술이 잘 전수되도록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문화재는 한번 소실되면 그만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 전수관을 통한 후계양성에 남은 인생을 모두 바칠 각오입니다. 1년에 10여명 정도 전수하는데 앞일을 생각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입문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수요도 충분할 거라 생각합니다”

홍 선생은 또 고려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의 제책방식을 복원하는데 연구를 집중하고 있다. 고려시대 때부터 사용된 제책 방식을 살펴보면 수십 가지가 넘는다는 홍 선생은 이것 또한 누군가가 해야 할 일 중의 하나라 여기고 천직과 숙명으로 제책방식과 복원에 전념할 계획이란다.

유창준국장 chang@print.or.kr